

<우수 논문 및 창작 공모전>

국어국문학과 17학번

공모 분야: 시 부문

기록물의 연유

노래가 끝이 났다
꽃을 던진다
침강한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다
해도 자취를 감춘
종이 같은 하늘에
뚝단배 하나 떠간다

등실
소녀와 소년의 얼굴
그들은 밝게
때론 아프게 웃는다

서로가 서로를 닮아
서로에게서 웃음만 배운다
그 밖 세상에서 가져갈 것은
병싯 밀어내고

그날은 유독
전화구멍에서 습기가 찼다
구름 한 점 없어도
종이가 울컥 울었다

등실
삶은 출렁이며
다시 떠내려가고

산 자는
열심히 울어야 한다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고통을 고이 매듭짓고

자신을 지긋이 밟고 웃는 이들은

일상을 빼곡히 수놓는다

활자로 사진으로

노래로

반듯하고 이내 휘어진

한 번 손을 잡아준 이에게
두 번 일에 휘말렸을 땐
손을 떼어내 자리를 옮겼다

어릴 적 친구에게 책을 선물했다
네게 필요한 글이라 말하고
흙친 책이란 것을 숨겼다

요가를 할 땐 척추를 조심한다
곧이곧대로 걸어온 삶은
중심이 흔들릴 일이 없다

중심을 연결하는 뼈들을 상상하며
목뼈를 지탱할 땐
어깨뼈가 자꾸만 오그라든다

마음을 비우고자 하는 행동들은
기억한다 나를 구성하는 근육과 살점은
오롯이 뼈를 지탱하기 위함을

깊은 내면의 녹진함과 녹녹함은
표정의 알량함과 간사함의 사이를
쉬이 잊지 못했고

기도를 빌던 닳은 손과
밤새 전등을 키고 읽었던 글
성인이 된 이후로 쓴 적 없는 무릎

그것들을 한 데
모으고 굽힌다

습관

볼우물이 파이며 새하얗게 빛이 났다
동그라미 이마가 참으로 가엾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이라
그랬던 것일까

하루는 그 애 생각이 났다
생각만 하며 버스를 놓치고 또
버스를 보내었다

사랑한다고 네 기억을 하염없이
빌려도 되는 것일까
손 안에는 땀이 묻은 공기만 머문다

바람이 잔잔한 날에
물결도 일지 않는 강물을 보다가

볼우물과 그 주변으로 어지러이
흘러지던 머리칼이 떠올랐다

퐁당퐁당 무언가 끊임없이 낙하하고
이내 떠오르지 않았다

잔잔하고 또 요요히 흐르는
네 뒷모습 같이

새카만 점, 그렇게 웃는다

스스로 정체성을 정한 바 없다
저절로 생성되고 굳어져
첻바퀴 도는 쥐마냥
원통을 벗어날 수 없다

그토록 웃으면 웃는 삶이 그려질까
그토록 반기면 반기는 삶이 그려질까
웃 입고 춤추고 집에 돌아와
개떡 같은 얼굴로 웃을 벗었다

나의 정체가 뭐요
도통 모르겠다며 오므린 입술로
비겁한 새끼
욕이 들끓는다

생성되고 그토록 생성된
정체성은
찢고 찢 죽인다 고향쳐도
버려지지 않았다

짧고 꼬리 자르기 급급했던
비겁한 삶에 꼬리표로 남아
이십 년 모은 웃감에
총구를 겨눈다

끼릭끼릭 실린더 돌아갈 때만
여유를 가장한 웃음 내비치고
방아쇠를 당기기만 해봐라

그토록 몸부림치며 거대한 변주는
사실 도박이었던 것을

욕설은 방어의 살갓이었던 것을

쥐와 나의 다른 점은

젓바퀴를 돌고 도는 앞발에

정체성의 시발을 거대하게도

묶고 있다는 것

침체

아이는 밖으로 나와 입을 벌리고
한참 뒤 응애 울음을 토했다
잊기 힘들었다
잊었다

배를 갈라 나온 아이는 더욱
잊기가 어려웠다
갈라진 흉터 위로 새긴
꽃의 침묵에도

머뭇이 없는 자들은 위악이라 떠들었다
온통 머무는 자들은 위선이라
등돌려 조소했다

자연으로 돌아가 태어난 것만으로 눈부신
온갖 것들을 마주하고
자라는 생명들을 보아도

모든 작은 것들로부터 열매가 움튼다
파리를 틀고 스멀스멀
빛이 오르고 입술이 꽃피고

말과 미동이 없는 건
오로지 나였다
이제 나의 눈은 서서히
명암을 잃는다

흔적기관

한 다리를 건넌 죽음은
내 것이 될 수 없기에
다른 이의 허리춤에 새겨진
빛 바랜 문신과 같았다

그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낮고 축축한 바위 위에 웅크려
색소가 번진 흔적을
조망하는 일

흐리게 깜빡이는 불빛을 응시할 때
더 깊게 패인 주름은
물안개 속 자욱한 벌레들의
들러붙음과도 같아서

자꾸만 손톱을 세우고
살갓을 벉벉 긁고 싶었다
가려워도 긁을 곳을
도무지 찾을 수 없어서

두어 발자국 먼 죽음은
가까운 이의 일상이었고
나는 새겨질 리 없는 흔적을 찾고자
꼬리뼈를 비틀었다

허기

남의 감정을 베낀다고
그것이 내게서 살아 숨쉴까
남의 사랑을 글로 배웠다
나의 사랑을 무성애라 읽었다

표정 하나 인종의 떨림 하나
내게 떨림으로 떨어질까
누군가 가슴이 벅겁다며
파이마냥 떨어주질 않을까

비둘기처럼 먹이를 쫓는다
사랑은 신념이 아니라
본능인 마냥 사랑을 쫓는다

부르튼 입에 립밤을 묻히고
거짓을 묻혔다
귓가에 하염없이 입술을 묻고
거짓말을 속살속살

없었던 감정을 있었다 말하기
참으로 낮 뜨겁기에
어딘가 허함을 싹 틔운
흙 속 뿌리에 대고

세상은 온통 사랑을 노래해
성애의 지구에
배운 건 사랑의 노래뿐이야

속살속살 그렇게

흠치고 덧입다

기억이 동강나 끊어진 토막들이
툑툑 떨어질 때

세차게 두들겨 맞은 듯
얼굴이 죄책으로 일그러진다

하물며 가장 연약한 낮을 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나의 범죄에 변명이 없다
그것에 유일한 선처를 기대했고

남의 치부로 옷을 짓고
너의 상처를 내 것인 양 덧입는다

쏟아지는 연민 빛 바랜 옷감
어느새 절도가 습관으로 익어버린

죄 많은 손목에 대고
툑툑 빗물이 번졌다

투명한 캔버스

붓을 들었다

넓은 캔버스가 안구로 쏟아졌다

네 치아가 생각 났다

물이 묻지 않은 붓은

거친 결을 남긴다

온통 제각각 제멋대로인 것이

요즘 내 맘 같다

투명하게 비치는 것도 죄야

지독하고 집요하게

덧칠을 했다

마지막에는 먼저 등을 돌려

뒤척이며 몇 날을 새다

비로소 오늘의 캔버스에 섰다

마른 물감에 자꾸만

붓이 나아가지 않자

물을 조금 묻혔다

조금은 투명하게

색이 차올라

캔버스를 채워갔다